

2024. 3. 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02-2133-6305

시민협력운영팀장

강규일

02-2133-6317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https://www.seoulpa.kr>

회의 공간 찾으세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커피 한잔 값에 이용가능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개선으로 시민 이용공간 확대... 현재 대관 접수 중
- 삼각지역 4분 거리 뛰어난 접근성, 시간당 6천 원의 저렴한 대관료, 각종 장비 무료 대여
- 공론장·커뮤니티 모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 시민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용산구 백범로 99길 40)의 공간개선을 통해 시민 이용공간을 확대하여 공간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용도가 낮았던 사무공간을 줄이고, 저렴한 대관료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사랑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23년 2월 조성되어,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대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활동가 역량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대관료, 각종 회의 장비 무료 대여 등의 장점으로 작년 한 해만 약 2만 7천여 명이 이용했다. 아울러, 시는 공간개선과 다양한 공익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공익활동 거점공간'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 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시 도보로 약 4분 거리(16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지인 용산역, 서울역과도 가까워 각종 회의·행사·교육 등 공간이나 공익활동을 위한 모임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지하철 이용 시 4·6호선 ‘삼각지역’ 8번 출구, 버스 이용 시 100, 150, 500, 605, 742번 등 약 16개 노선이 운행 중인 ‘삼각지역’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 또한, 센터의 대관료는 10인 회의실 기준 시간당 약 6천 원으로 인근 공간대여 시설의 15% 수준이다. 이동식 마이크, 스피커, 빔프로젝터 등 회의·음향 장비도 무료로 제공하여 대관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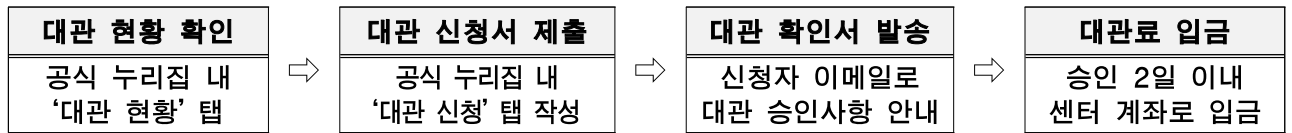
○ 용산구 내 민간 공간대여 시설의 경우 10인 회의실 기준 대관료 시간당 약 4만 원. 센터는 시간당 약 6천 원 부담(2시간 기준 12,500원, 민간 시설 대비 약 15% 수준)

□ 시민들은 회의 규모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대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공간개선 후 현재 ▲다목적홀(1실, 100인) ▲회의실(6실, 8~16인) ▲미디어실(1실, 영상회의 등) 등 4종류 총 8개의 대관공간을 운영 중이다.

공 간				
	회의실 1	회의실 2~6	다목적홀	미디어실
규 모	18명	8~12명	100명	8명
대관료 (2시간)	25,000원	12,500원	50,000원	12,500원

□ 대관예약은 공간이 필요한 누구나 센터 공식 누리집(<https://www.seoulpa.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에서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센터로부터 대관 확인서를 회신받은 2일 이내에 대관료를 입금하면 대관이 확정된다.



○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10:00~21:00, 토요일 10:00~17:00까지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아울러,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예약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열린공간은 ▲협력공간 ▲열린회의실 ▲사각회의실 ▲교육장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열린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 교육장·행사·공익활동 정보공유 등 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 한편, 센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민 공론장', '공익활동 체험모임'을 통해 과대포장 예방, 채식주의 실천(Vegan) 등 시민들이 손쉽게 공익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센터는 지난 2023년 221명이 참여한 '시민 공론장' 사업을 통해 디지털 약자, 저출생,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공공의제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센터는 공익활동가(단체) 역량강화 사업도 지원한다. 사업 기획 등 예비·실무 단계부터 펀딩, 공익법인 결산 등 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세무·노무 등 분야별 ‘1:1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전문가 컨설팅의 경우 지난 2023년 총 114건을 진행하고 4.7점 (5점 만점)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 활동가들의 호응이 높았다.



- 허혜경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공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센터가 ‘시민 중심의 공익활동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개요

센터개요

- 시설현황 :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 지하 1층(1,815㎡)
- 주요사업 : 시민 참여 공익활동 지원,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공간대관 등

운영현황

- 위 치 :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 지하 1층(1,815㎡)
- 운영시간 : 평일 10:00~21:00, 토요일 10:00~17:00
- 사업내용

비영리활동 운영지원	- 공공의제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발굴 공론장 및 커뮤니티 운영 -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 성과공유 - 공익활동가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교육사업	- 공익활동가 온라인 학습플랫폼 ‘판’ 운영 - 예비·신입·심화 등 공익활동가 경력별 및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 비영리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등 운영 - 공익활동 단체 대상 법률, 세무, 노무 등 분야 전문가 상담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 민간재단, 기업 등 공익활동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 언론, 뉴미디어 등 활용 공익활동 성과 홍보 및 영향력 확대

공간현황

○ 대관공간

공 간				
	회의실 1	회의실 2~6	다목적홀	미디어실
규 모	18명	8~12명	100명	8명
대관료 (2시간)	25,000원	12,500원	50,000원	12,500원

○ 열린공간

				
열린회의실	사각회의실	협력공간	교육장	휴게공간